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일자리 변동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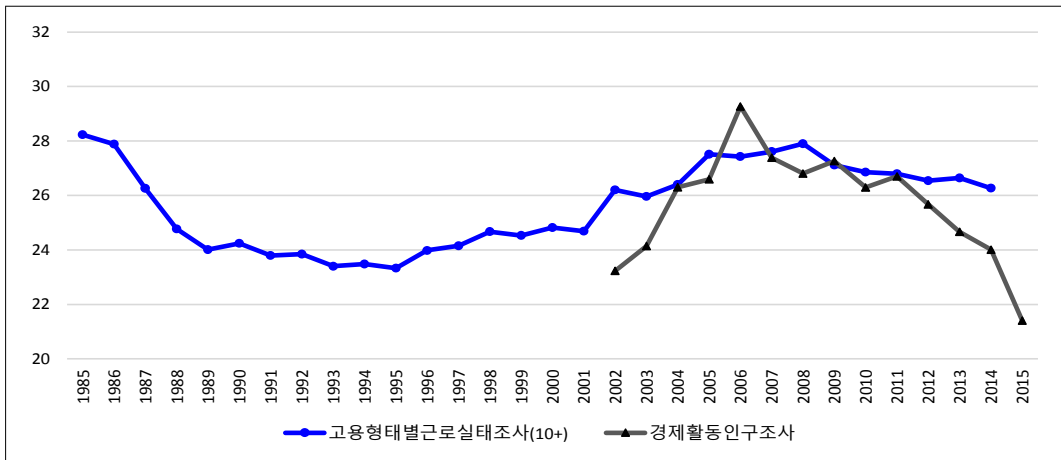
성재민**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990년대 초반 이래 금융위기 전인 2006~08년 정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관련 통계를 제공한 나라들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높은 저임금 비중을 갖는 나라이다.

(그림 1)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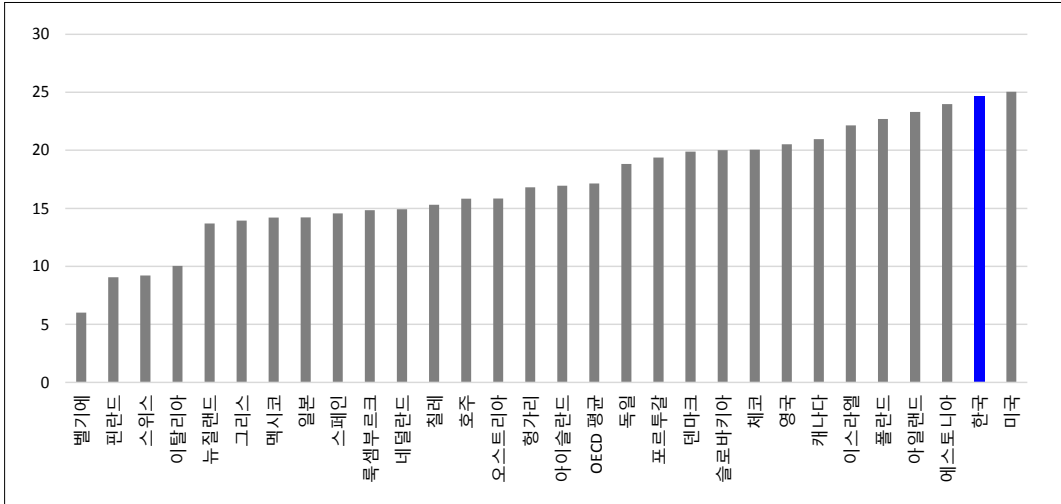
주: 수집된 자료는 월급여이므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10인 이상 사업체),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이 글은 성재민·안정화(2016), 『저임금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장을 재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seongjm@kli.re.kr).

[그림 2] OECD 국가들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3)

(단위 : %)



주 :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2013년 기준.
 자료 :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저임금 고용에 의존한 성장이라면, 그 과실이 고르게 퍼지지 못해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선순환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저임금 일자리가 많으면 빈곤과 불평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저임금 추세를 정리한 후 국제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추세 변동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저임금 노동을 연구할 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으로 정의하는 상대 저임금 개념이 폭넓게 사용된다. 임금이 노동의 가격이라고 할 때 단위 투입당 가격을 비교적 잘 보여주며, 근로시간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는 노동을 공급하는 측이 학업이나 가사 병행 등의 이유로 선택할 수 있어 시간당 임금이 아닌 다른 임금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급은 생활수준을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시간당 임금이 낮은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여 월급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일-생활 양립 문화가 확산되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들거나 탄력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이 추세가 확산된다면 점점 더 시간당 임금은 높으나 근로시간이 짧아 월급이 낮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월급 기준 저임금이 저숙련, 임금이 낮은 나쁜 일자리(bad job)와 갖는 연관성은 약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고의 전체적인 분석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추세를 다루는 II장에서는 월급을 기준으로 저임금을 정의(월급 기준 중위임금 2/3 미만)할 경우 어떤 추세가 나타나는지, 시간당 임금과 추세가 다르다면 그 원인은 시간제 근로 확산이 맞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추세를 정리한 다음에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저임금 영역에서의 임금인상과 고용규모 변동의 영향을 분석한 후, 성·학력·연령 같은 인적구성 변화와 산업·직업 변동 같은 노동 수요 측 요인 변화의 영향을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에서 전체 분석을 정리하고 함의를 도출하겠다.

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추세

1. 시간당 임금, 월급 기준으로 본 저임금 추세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을 정의하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할 경우 월급여와 주당 정해진 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월에 몇 주 일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표 1>의 시간당 저임금 부분이 바로 월급여와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해 계산한 시간당 임금 기준 상대저임금 비중이다.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한 임금 기준별 저임금 추이

(단위 : %)

	시간당 저임금	월급 기준 저임금	월급 기준 - 시간제 근로자 제외	시간당 임금 기준 - 시간제 근로자 제외
2004	26.3	26.0	24.9	26.8
2005	26.6	24.8	24.7	26.9
2006	29.3	26.3	21.6	27.6
2007	27.4	25.7	20.6	27.2
2008	26.8	21.2	24.2	26.5
2009	27.3	22.8	24.5	27.3
2010	26.3	26.7	22.6	27.5
2011	26.7	26.1	19.6	25.2
2012	25.7	23.7	25.7	25.1
2013	24.7	21.3	23.0	22.0
2014	24.0	24.5	20.2	23.2
2015	21.4	25.5	16.9	22.1

주 : 시간당 저임금 = 시간당 중위임금 2/3 미만, 월급기준 저임금 = 월급여 중위임금 2/3 미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를 가공하여 필자 계산.

다음으로, 월급 기준으로 저임금 비중도 계산해 보았다. 이렇게 보면 2014년, 2015년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전반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굉장히 연도별로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급이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응답되는 히핑 오차(hipping error)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월급 기준 저임금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시간당 임금이 높더라도 근로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를 제외하면 월급을 기준으로 분석하더라도 최근 몇 년간 저임금 근로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월급 기준-시간제 근로자 제외」 참조). 또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 기준 저임금 비중을 계산해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모습이 보인다(「시간당 임금 기준-시간제 근로자 제외」 참조).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해 분석해 보았다. 2006년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통계를 제공하며, 사업체 조사이기 때문에 히핑오차가 적은 임금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6월 기준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월 근로시간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 시간당 임금 계산에서 측정오차가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체 조사는 일반적으로 가구 조사에 비해 임금근로자 대표성 면에서 단점이 있다. 조사 자체에서 정부기관이 제외되고, 개인 경영 농림어업체 등 일부 누락되는 부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임금은 초과근로와 특별급여를 합한 총임금을 사용하였으며, 월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하였다. 시간당 임금 기준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하다. 월급을 보아도 2010년 이래 점진적인 하락

〈표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임금 기준별 저임금 추이

(단위 : %)

	시간당	총액월급	시간제 제외 총액 월급	정규근로시간 월 130시간 미만 제외 - 총액월급	정규근로시간 월 130시간 미만 제외 - 시간당임금
2006	27.9	27.6	26.5	26.1	27.6
2007	28.2	27.1	25.5	25.2	28.2
2008	28.1	26.4	25.6	25.4	27.6
2009	27.3	26.4	25.9	25.5	27.0
2010	26.8	26.8	25.7	25.6	26.5
2011	26.3	26.8	25.7	24.4	26.0
2012	26.0	26.7	24.6	23.6	25.8
2013	23.0	26.6	24.9	23.7	22.7
2014	22.6	26.2	24.4	24.0	22.4
2015	21.7	25.8	23.6	24.0	21.9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도 시간제 여부가 조사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월급 기준 저임금을 정의해 비중 추이를 계산해 보면 2009년 이래 좀 더 가파른 저임금 비중 감소추세가 나타난다. 월 130시간 미만인 대략 주당 3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추이를 계산해 보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2014년과 2015년은 2013년보다는 약간 높은 24%로 나타나 2011~15년 간 하락보다는 횡보에 더 가까운 추이를 보인다. 월 130시간 미만,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뚜렷한 하락추세가 확인된다.

정리하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시간제를 포함하나, 하지 않으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추세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모두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다만, 월급을 기준으로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최근 3년 정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증가추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짧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월급이 낮은 시간제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시간제를 포함하더라도 월급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 상승추세는 확인되지 않으며, 완만한 감소세가 나타난다.

2.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 변동과 고용규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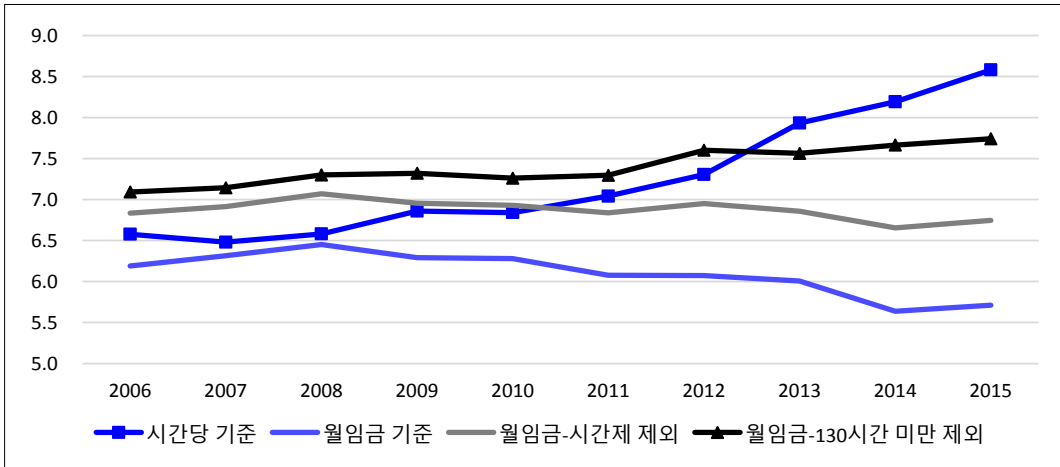
저임금 일자리 비중 변동은 저임금 일자리의 고용규모 변동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 상승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다. 상대저임금 일자리는 중위임금의 2/3 미만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정의되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여 중위임금과의 격차가 감소한다면 저임금 일자리 비중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저임금 일자리 고용규모만 축소되고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은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다면, 10분위로 나누어 하위 1, 2분위 임금 몫(=전체 임금 중 하위 1, 2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볼 경우 임금 몫에 변동이 없거나 감소했을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는 히핑오차 때문에 분위가 정확히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그림 3]에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시간당 임금 기준 10분위 중 1, 2분위 임금 몫은 200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월급 기준은 2008년 이래 하락하지만, 시간제를 제외하면 미미한 하락이 나타날 뿐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제 중 상당수를 비시간제로 포착하므로, 아예 월 130시간 미만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면 월급 기준으로 보더라도 1, 2분위 임금 몫이 증가추세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임금 비중 감소에서 저임금 일자리에서의 상대적으로 빠른 임금 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로는 임금서열별 일자리의 임금 상승률을 계산해 보았다. 개인의 임금 서열이 아니라 산업 대분류×직업 대분류로 정의되는 개별 일자리의 임금서열별 임금 증가율이다. 개별 일자

[그림 3] 기준별 임금 뒀 추이(10분위 중 하위 1-2 분위 뒀)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리의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각 일자리의 고용규모를 감안해 10개 분위로 나누었다. 1분위 일자리가 모든 일자리의 중위임금 기준으로 가장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이며, 10분위 일자리가 가장 임금이 높은 일자리들이다. 일자리의 중위임금이므로,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는 개인은 개인 임금 서열 10분위로 구분할 경우 일자리의 분위와 동일 분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분위에 속할 수도 있다.

서열화할 때 사용한 임금의 기준은 초과근로, 특별급여를 모두 합친 총월급을 초과근로를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화하였다. 결과를 보면 1분위 일자리들에서 가장 빠른 시간당 임금 증가율을 보였고, 가장 높은 10분위와 9분위의 일자리들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각 분위에 속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임금(각 일자리의 취업자 수를 이용해 계산)으로 보나, 중위임금으로 보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개인 임금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어 하위 1, 2분위 임금 뒀을 보나,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10분위를 구분해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 증가율을 보나 모두 저임금 쪽에서 빠른 임금 성장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것이 저임금 일자리 비중 감소의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빠른 임금 성장이 저임금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면, 일자리 임금 서열 하위 1분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개인 임금 기준으로는 저임금보다 중간임금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표 4>는 일자리의 임금 서열별로 해당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들이 개인 임금 기준 저/중간/고임금 수준에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3〉 일자리의 임금 분위별 임금 증가율

(단위: 천 원, %)

	평 균			중위값		
	2009년	2015년	증가율	2009년	2015년	증가율
1분위 일자리	5.84	7.22	23.6	4.94	6.37	29.0
2분위 일자리	8.18	8.77	7.3	6.42	7.35	14.5
3분위 일자리	10.60	11.30	6.6	8.08	8.90	10.1
4분위 일자리	10.91	11.07	1.5	8.83	9.48	7.4
5분위 일자리	11.65	11.11	-4.6	9.46	9.80	3.6
6분위 일자리	12.52	13.71	9.5	10.42	11.38	9.2
7분위 일자리	13.31	13.84	4.0	11.47	11.95	4.2
8분위 일자리	15.93	17.17	7.8	12.87	13.53	5.1
9분위 일자리	18.06	16.97	-6.1	15.46	14.66	-5.2
10분위 일자리	22.81	21.21	-7.0	19.86	18.11	-8.8

주: 2009년 당시 임금 기준으로 일자리 임금서열을 구분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일자리 임금 서열별 임금근로자 분포 변화

(단위: %)

	2009년				2015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계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계
1분위 일자리	74.1	23.3	2.7	100.0	58.1	39.2	2.7	100.0
2분위 일자리	50.5	40.0	9.5	100.0	37.4	55.1	7.5	100.0
3분위 일자리	33.5	49.2	17.3	100.0	25.3	59.0	15.7	100.0
4분위 일자리	26.7	53.5	19.9	100.0	20.7	61.7	17.6	100.0
5분위 일자리	21.9	53.6	24.5	100.0	15.9	67.2	16.8	100.0
6분위 일자리	18.6	55.7	25.7	100.0	13.9	55.2	30.8	100.0
7분위 일자리	14.2	53.8	32.1	100.0	11.6	53.8	34.6	100.0
8분위 일자리	11.9	45.3	42.8	100.0	7.2	49.7	43.1	100.0
9분위 일자리	10.2	35.9	53.9	100.0	8.7	43.0	48.3	100.0
10분위 일자리	3.9	27.9	68.2	100.0	4.2	33.2	62.6	100.0
전 체	27.3	43.9	28.8	100.0	21.7	52.3	26.0	100.0

주: 2009년 당시 임금 기준으로 일자리 임금서열을 구분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장 임금이 낮은 1분위 일자리들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74%는 2009년에 저임금 일자리에
 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이 되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중은 58.1%로
 줄어들고 중간임금층에서 일하는 비중이 2009년 23.3%에서 39.2%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2

분위나 3분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앞서 본 <표 3>에 따르면 임금 분위가 낮은 일자리일 수록 임금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저임금 → 중간임금으로의 임금 수준 상승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인적 구성변화, 일자리 변화와 저임금 추세 변동 원인

1. 임금수준별 인적 구성변화와 일자리 변화

연령대별로 보면 25~54세 저임금 근로자는 2007년에만 해도 2,637천 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1,852천 명으로 784천 명 감소하였다. 대신 55세 이상에서는 동 기간 1,022천 명에서 1,529천 명으로 507천 명 증가했으며, 15~24세에서도 691천 명에서 755천 명으로 약 64천 명가량 증가했다. 증감 규모로 볼 때 국제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활동이 활발한 25~54세가 저임금 일자리에서 빠져나간 자리를 15~24세와 55세 이상이 메운 셈이다. 25~54세는 저임금 일자리에서 빠져나간 대신 비저임금 일자리에서 무려 219만 명이 증가했다. 55세 이상은 저임금 일자리에서도 증가했지만, 비저임금 일자리에서도 1,314천 명 증가했다.

국제금융위기 이전에는 25~54세도 저임금 일자리에서 2004 → 2007년 간 363천 명 증가했다. 55세 이상은 동 기간 저임금 고용이 252천 명 증가했고, 비저임금 일자리에서는 143천 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국제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금융위기 이후에는 비저임금 고용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강해진 가운데, 25~54세 저임금 근로자 감소가 중요한 특징으로 부각된다.

직업군별로 보면, 저임금인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모두에서 25~54세는 숫자가 감소하였고, 대신 비저임금인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위기 이전에는 25~54세 저임금 단순노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가장 크게 대조되는 특징이다. 나머지 연령대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들 세 직업군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55세 이상 단순노무직은 28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비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가, 사무직과 함께 조립원에서도 고용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무직 증가는 여러 업종에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조립원 증가는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 제조업 고용 증가의 영향이다.

〈표 5〉 연령대별, 저임금 여부별, 직업별 증감

(단위 : 천 명)

		비저임금					저임금				
		2004년	2007년	2015년	2004~07년	2007~15년	2004년	2007년	2015년	2004~07년	2007~15년
15~24세	관리자	-	-	-	-	-	-	-	-	-	-
	전문가	260	220	292	-40	73	85	65	60	-19	-5
	사무직	315	234	214	-81	-20	146	116	56	-30	-60
	서비스종사자	84	78	83	-5	5	194	202	278	8	75
	판매종사자	84	71	81	-13	10	164	157	197	-6	40
	농어업숙련종사자	-	1	2	1	1	-	1	-	1	-1
	기능원	43	31	30	-12	-2	32	24	14	-7	-10
	조립	133	47	93	-86	46	53	20	24	-33	3
	단순노무종사자	72	61	87	-11	26	118	105	127	-13	22
계	990	743	882	-247	139	791	691	755	-100	64	
25~54세	관리자	198	289	201	92	-89	1	2	-	1	-2
	전문가	2,137	2,691	3,398	554	707	125	199	203	74	3
	사무직	2,387	2,511	3,380	125	869	167	218	170	52	-48
	서비스종사자	498	496	688	-1	191	462	522	406	60	-115
	판매종사자	759	804	914	46	110	281	332	281	52	-51
	농어업숙련종사자	23	20	21	-4	1	8	16	3	8	-13
	기능원	1,117	1,133	1,195	16	61	275	271	108	-5	-163
	조립	1,255	1,293	1,569	38	277	269	282	157	13	-125
	단순노무종사자	708	731	795	23	63	687	795	524	108	-271
계	9,082	9,969	12,159	887	2,190	2,274	2,637	1,852	363	-784	
55세 이상	관리자	57	67	96	10	29	1	2	1	1	-1
	전문가	79	123	286	44	163	8	11	43	2	33
	사무직	72	84	262	12	178	17	21	33	4	12
	서비스종사자	43	37	174	-6	138	73	94	211	20	118
	판매종사자	35	36	108	2	71	20	26	79	6	54
	농어업숙련종사자	5	4	14	-1	10	19	26	10	6	-16
	기능원	112	116	317	4	201	45	61	59	16	-2
	조립	95	131	362	36	230	35	40	68	5	29
	단순노무종사자	182	223	516	41	293	552	743	1,024	192	280
계	678	820	2,135	143	1,314	771	1,022	1,529	252	5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를 가공하여 필자 계산.

세부 직업별로 보면, 15~24세는 서비스 종사자 중 주로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로 추정되는 음식서비스 종사자 직종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한 반면, 55세 이상은 주로 의료복지관련

서비스 종사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간병인 직종에서 주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차이가 있었다. 25~54세는 기존에 저임금 근로자가 많았던 주방장과 조리사, 음식 서비스 종사자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감소하고, 비저임금 근로자는 증가하는 상반된 고용 트렌드가 나타났다.

〈표 6〉 연령대별, 저임금 여부별, 서비스 종사자의 직업 세분류별 추이

(단위 : 천 명)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비저임금		저임금		비저임금		저임금		비저임금		저임금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경찰 소방	1	1		0	131	141	2	1	8	13		0
보안	4	9	2	5	33	54	6	6	3	6	1	3
의료 복지 관련	1	3	1	2	28	66	40	71	7	59	17	88
이미용 및 관련	6	16	19	26	30	51	38	41	1	1	2	3
혼례 및 장례	1	2	1	3	6	9	4	2	1	1	1	1
기타 이미용 의료			1		1	0	2	0		0	1	3
운송 서비스	2	1			9	11	0		0	2		
여가 및 스포츠 종사자	6	13	16	31	35	43	20	18	1	5	2	5
주방장 및 조리사	6	18	7	22	156	202	181	106	25	55	43	60
음식서비스 종사자	23	55	46	142	105	113	191	157	4	10	11	22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를 가공하여 필자 계산.

〈표 7〉 연령대별, 저임금 여부별, 단순노무 종사자의 직업 세분류별 추이

(단위 : 천 명)

	15~24세				25~54세				55세 이상			
	비저임금		저임금		비저임금		저임금		비저임금		저임금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2008	2014
건설 및 광업	2	5	3	3	190	191	93	54	57	103	44	43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1	7	1	3	33	56	9	13	5	10	2	6
배달원	5	9	8	12	93	109	43	43	7	20	10	15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8	14	9	13	115	127	197	144	20	34	50	59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1	2	2	4	71	80	107	68	59	136	245	378
경비원 및 검표원	1	1	2	2	26	20	19	11	34	49	196	158
가사 및 육아 도우미	0	1	1	1	39	26	46	38	20	41	54	86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3	14	9	25	46	63	151	111	13	46	52	109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2	5	8	14	29	41	37	43	4	7	17	17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0	0	1	1	10	14	27	23	10	19	63	83
계기검침/수금 및 주차관련 종사원	1	2	3	4	18	18	8	9	6	10	10	15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1	2	1	3	23	33	18	19	4	15	12	58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를 가공하여 필자 계산.

다음으로, 단순노무종사자도 세부 직업별로 보면, 주로 55세 이상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다소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직종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경비원 및 검표원 직종은 저임금 근로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 관련 단순종사원도 55세 이상에서는 다소 큰 증가를 보였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저임금 감소, 중간임금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은 제조업이다. 제조업에서 저임금 근로자는 2007년과 2015년 사이 247천 명 감소한 반면, 중간임금 근로자는 542천 명 증가했고, 고임금 근로자도 351천 명 증가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중간임금 근로자 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업종에서 동 기간 중간임금 근로자가 691천 명 증가했으나, 저임금 근로자도 268천 명 증가했다.

고학력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 증가, 저학력자 감소는 저임금 근로

〈표 8〉 임금수준별, 산업별 임금근로자 추이(9차 산업분류)

(단위: 천 명)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2007	2015	2007	2015	2007	2015
농림어업	99	76	38	42	9	7
광업	1	-	7	9	10	5
제조업	656	409	1,678	2,220	1,026	1,37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	1	16	26	58	6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9	7	35	58	12	18
건설업	306	157	814	923	274	309
도매 및 소매업	693	685	949	1,190	298	360
운수업	167	135	340	456	170	192
숙박 및 음식점업	766	861	356	528	53	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8	37	251	337	315	341
금융 및 보험업	55	35	287	296	402	4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3	120	122	190	43	5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4	41	247	411	294	45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45	422	413	651	78	9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9	170	184	283	487	498
교육 서비스업	204	152	534	698	628	6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7	425	340	1,031	181	2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9	94	82	155	42	4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6	260	305	426	80	95
가구내 고용활동	101	50	55	14	5	-
국제 및 외국기관	1	-	5	9	13	10
전 체	4,350	4,136	7,055	9,953	4,478	5,2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를 가공하여 필자 계산.

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4년제 대졸 중 중간임금 근로자+고임금 근로자는 2015년 기준으로 5,252천 명인 반면, 저임금 근로자 수는 356천 명이었다. 고졸은 중간임금+고임금 5,338천 명이고 저임금 근로자 수는 2,099천 명이었다. 4년제 졸업자와 중간임금 이상 규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저임금 근로자는 약 6배가량 되는 셈이다.

2007년에 비해 2015년 고졸 임금근로자는 778천 명 증가하였고, 4년제 대졸자는 1,813천 명 증가하였는데, 고졸 중간임금 이상 근로자는 818천 명 증가한 반면, 고졸 저임금 근로자는 4만 명 감소하였다. 4년제 대졸 중간임금 이상 근로자는 1,719천 명 증가하였고, 대졸 저임금 근로자는 94천 명 증가하였다. 4년제 대졸 임금근로자는 워낙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 수가 약간 증가했다 해도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울 것이다. 반면, 금융위기 이전인 2002년과 2007년 수치를 비교해 보면 고졸의 경우 중간임금 근로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고, 저임금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년제 대졸은 저임금에서도 증가했지만, 중간임금 이상에서도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정리하면, 고학력자 증가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한편, 국제 금융위기 이후의 중간임금 위주 일자리 증가 현상은 고학력화를 넘어 다른 학력계층에서도 뚜렷이 관찰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9〉 교육수준별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2002	2007	2015	2002	2007	2015	2002	2007	2015
초졸 이하	728	837	714	573	366	439	63	46	31
~중졸 이하	619	725	592	890	596	682	134	97	71
~고졸 이하	1,581	2,139	2,099	3,560	3,329	4,154	1,273	1,192	1,184
전문대졸	206	365	336	994	1,251	1,780	378	535	693
4년제 대졸	117	262	356	1,002	1,400	2,639	1,490	2,133	2,613
대학원 이상	9	22	40	100	114	259	313	476	630
전 체	3,260	4,350	4,136	7,119	7,055	9,953	3,650	4,478	5,2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를 가공하여 필자 계산.

2. 저임금 비중 감소의 원인1)

여기서는 2009년에 2015년의 산업과 직업 등 일자리 특성과 인적속성 분포가 나타났다면

1) 이 절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론 설명은 성재민·안정화(2016), 『저임금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장 DFL 설명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임금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해 보겠다. 분석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상용, 임시, 일용)를 2009년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모형, 연령(15~24, 25~44, 45~54, 55+), 교육(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성별을 2009년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모형을 추정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자는 수요 측 요인에 따른 분포 변화를 통제한 모형, 후자는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분포 변화를 통제한 모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분석에 따르면, 수요 측 요인은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직, 전문가, 사무직, 상용직 중심의 일자리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임금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고 저임금 일자리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동공급 측 요인은 고학력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교육을 제외하고는 고령화, 여성 노동력 증대가 저임금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 추정과정에서 산업은 저임금 비중 10% 미만, 10~29%, 30%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저임금 10% 미만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0~29% 산업으로 분류하였고, 농림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은 30% 이상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관리자/전문가/사무직/서비스 근로자/판매 근로자/기능원과 조립원/농업숙련근로자와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근로시간도 고려해 추정하였다. 임금근로자 수가 아니라 총노동량이라 볼 수 있는 임금근로자수×근로시간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면 저임금 트렌드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저임금에서 시간제 근로가 급증하고 경제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환경에서 총노동량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과를 보면, 2009년에 만약 2015년과 교육, 연령, 성별 분포가 동일했다면, 2009년 실적치에 비해 저임금 비중은 소폭 증가했을 것이며(26.1%→26.9%), 중간임금은 감소(43.8%→40.6%)하고, 고임금은 증가(30.1%→32.6%)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학력화가 저임금 비중 감소요인이긴 하지만, 고령화와 여성화 효과가 고학력화를 넘어 저임금을 악화시키고, 중간임금은 감소시키는 효과로 귀결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산업, 직업, 사업장 종업원 규모, 종사상 지위가 2015년과 같았다면, 2009년의 저임금 규모는 소폭인 0.2%p 정도 증가하고, 중간임금 비중은 증가(43.8%→46.8%)하며, 고임금 비중은 감소(30.1%→26.9%)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자리 특성 변화는 중간임금을 증가시키고, 고임금 비중은 감소시키는데, 그 수준이 2015년 실적치 26.4% 수준에 거의 유사할 만큼

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임금 비중 감소가 일자리 구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시기 가장 크게 증가한 일자리가 제조업 생산직,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였고 이들 일자리가 중간임금 일자리 증가의 주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듯한 결과이다. 다만, 저임금 변동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2015년 인적특성 및 사업체 특성 분포로 2009년을 일치시켰을 때의 임금 분포 변화 1

교육, 연령, 성만 일치						
		저임금	중간 임금	고임금	계	
실적치	2009	26.1	43.8	30.1	100.0	
	2015	20.9	52.8	26.4	100.0	
2009년 임금, 2015년 인적 구성일 때 가상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비중		2009	26.9	40.6	32.6	100.0
산업, 직업, 규모, 종사상 지위만 일치						
		저임금	중간 임금	고임금	계	
실적치	2009	26.1	43.8	30.1	100.0	
	2015	20.9	52.8	26.4	100.0	
2009년 임금, 2015년 일자리 구성일 때 가상의 임금수준별 근로자 비중		2009	26.3	46.8	26.9	100.0

마지막으로, 일자리 구성과 인적 구성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석해 보았다. 정확히 일치시키려면 각 요인들 간의 교호항을 이용해야 하므로 많은 변수를 통제할 수 없어 종업원 규모 변수를 누락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에 2015년과 교육×연령×성×산업×직업×종사상 지위 분포가 동일했다면, 2009년 실적치에 비해 저임금 비중은 다소 증가(26.1% → 26.9%), 중간임금은 증가(43.8% → 45.2%), 고임금은 2015년 실적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감소(30.1% → 27.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분포만 통제했을 때와 유사한 결과로, 인적 구성변화보다는 일자리 구성 변화가 국제금융위기 이후 고임금 비중 감소와 그로 인한 중간임금 증가를 잘 설명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저임금 비중 감소에는 일자리 구성변화, 인적 구성변화 모두 설명력이 약함을 보여준다.

〈표 11〉 2015년 인적특성 및 사업체 특성 분포로 2009년을 일치시켰을 때의 임금 분포 변화 2

		저임금	중간 임금	고임금	계	
실적치	2009	26.1	43.8	30.1	100.0	
	2015	20.9	52.8	26.4	100.0	
2009년 임금, 2015년 일자리 및 인적 구성일 때 가상의 임금 수준별 근로자 비중		2009	26.9	45.2	27.9	100.0

이상의 결과는 임금은 2009년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분포만 2015년으로 변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본 것이다. 임금 변화 없이 2015년 수준으로 일자리 분포를 맞춰줄 경우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26.9%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2009년에 비해 2015년에 저임금 일자리가 약간 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5년의 상대임금을 적용하면 저임금 비중이 확연히 떨어지는데(2015년 실적치), 이는 앞서 보았듯이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지한다. 이 시기 저임금 일자리 증가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없어 저임금 일자리라도 잡아야 하는 노동공급 초과현상의 반영이 아니라 저임금 일자리 노동수요 증가의 반영일 가능성과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어떤 요인이 더 중요했을 지는 추후 검증의 문제이다. 어쨌든 이 원고의 연구결과는 이 시기 저임금 비중 변동을 설명하려면 왜 저임금 일자리에서 임금이 빠르게 증가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마지막으로, 고임금 일자리의 임금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일자리의 정체나 세계 시장이 예전 같지 않은 데서 오는 연관 일자리의 성장 정체 등 일자리 규모 자체의 정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둔화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2015년 수준으로 일자리 분포를 맞춰주면 임금 변화 없이도 고임금 비중이 줄어드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추세와 변동 원인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정해 분석하였다. 시간당 임금만이 아니라 월급 기준으로도 상대저임금 추이를 비교해 보았다. 월급과 시간당 임금 간 추이에서의 차이는 그간 꾸준히 증가해 온 시간제 근로 때문임을 발견하였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저임금 비중이 감소하는 이유도 분석해 보았다. 저임금 일자리 자체의 고용규모 축소도 저임금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 고용규모는 그대로여도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저임금 비중은 감소할 수 있다. 몇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후자 가설이 상당한 설명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얼핏 보기에는 일자리 부족으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동공급 주도 현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채워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수요 주도적인 저임금 노동시장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일자리가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면서 25~54세가 그쪽으로 빠져나가 이와 같은 저임금 노동시

장에서 수요주도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의 관점에서 재정,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는 재정이 좀 더 투입되면 워낙 잠재된 서비스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여지가 큰 분야이다. 정부가 관련 부문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정책 면에서도 일자리의 질에 중심을 두는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분배의 역할과 임금 인상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최저임금과 노동조합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수준을 넘어서 하위 임금을 끌어올리는 임금 조정 메커니즘은 실질적으로 저임금 비중을 낮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KLI**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성재민·안정화(2016), 『저임금 일자리의 동태적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_____,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